

# “농작물보험 가입 벼농가 무재해뎨 70% 환급”

### 농림부·NH농협전남총국, 무사고환급제 도입 이달말까지 판매 ... 병해충특약 가입때도 보상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 짓던 시절은 지났다. 기후 변화로 농작물 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는 농민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총국장 서운중)은 11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지난 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 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농가 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

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 및 서해안 간척지에서 큰 모내기 손해를 입은 벼 농가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11일 현재 10만1000ha 전체가입면적 중 지난해 1만3189ha 대비 2만5334ha가 가입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업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서운중 전남총국장은 “근래의 자연환경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 대형피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어 행여 있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위해 조경수 심어

### 전남농협·장흥축협 등 공동 축산환경 개선의 날 선포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장흥축협(조합장 문흥기), (사)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11일 장흥군 관산읍 한 한우농가에서 ‘축산환경 개선의 날’ 선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축산운동 봉사

단 20여명과 이 한우 농장을 찾아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분뇨 처리와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장 주변에 조경수를 심었다.

강남경 본부장은 “깨끗한 축산환경 및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우리 축산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청정 전남축산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외국인 농촌관광 확대 농림부-NH여행 협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외국인 관광객의 농촌관광 유지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투어 ITC, NH여행 등 주요 여행사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 ITC는 모객 규모 국내 1위인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다. 또한, NH여행은 ‘농촌으로 가는 행복여행’ 운영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농촌관광 전문 여행사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제와 시기에 따른 농촌관광 자원 추천 등 여행사의 상품기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업계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외국인 일반 또는 기업 대상(MICE)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 최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농촌 농촌관광객유에 대한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농촌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는 전통, 레포츠, 농산물 수확, 경관 및 생태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다”며 “외국인 전문 여행사 및 농촌관광 전문 여행사와 함께 농촌관광 상품 개발에 힘쓴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마련한 ‘도시가족 농촌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이 여수 갯벌노을마을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 “가족과 함께 맨손으로 고기 잡고 바지락 캐고”

### 전남농협, 여수·담양서 ‘도시가족 농촌체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과 농업을 체험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 낚시 처음 고사리를 쥐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하고, 맨손으로 바다에서 장어와 문어를 잡는 가족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간 여수 갯벌노을마을과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 광양·순

천지역 도시가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가족 농촌체험’을 했다.

특히 ‘2016년 봄 여행주간(5월 1일~5월 14일)을 맞아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위주로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여수 갯벌노을마을에서는 감자수확, 맨손고기잡기, 바지락캐기체험을 했다. 또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는 대롱밥만

들기, 고사리취기, 천연염색체험 등 다채로운 농촌체험과 더불어 마을에서 준비한 푸짐한 시골 밥상을 맛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남경 본부장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활성화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다가오는 여름휴가는 농촌만이 간직한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농촌여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3년후 쇠고기 자급률 40% 아래로 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

### 사육수 감소·수입육 증가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오는 2019년 38.8%까지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사육마릿수 감소와 수입육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우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쇠고기 자급률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국내산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2년 9월 314만 마리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2월 306만마리, 2013년 292만마리, 2014년 276만마리, 2015년 268만마리, 올해 3월말 현재 260만마리까지 줄었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9년 22만5t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생산감소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1%에서 지난해에는 46%대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38.8%까지 낮아질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한우 사육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한우 도매가격은 강세를 띠고 쇠고기 수입량은 늘어났다.

올해 1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1등급 kg

당 1만84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1%나 상승했다. 평년 동기에 비해서도 32.3%나 올랐다.

쇠고기 수입은 2012년 25만4000t, 2013년 25만7000t, 2014년 28만t, 2015년 29만7000t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쇠고기 수입량도 7만8000t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6%, 평년 동기보다 19.6%나 증가했다.

올해 30만t을 넘어 2020년에는 쇠고기 수입량이 35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원은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내년까지 계속되고 이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과 호주와의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도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원은 쇠고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암소 번식 기반을 확대하고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암소 감축사업, FTA폐업 지원 등으로 소규모 한우 번식 농가의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